

# 광양복초, 학생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열다

### 학교 교육목표·교육중점·학교특색교육 등 학사 달력 중심으로 교육활동과 내용 소개

광양복초등학교(교장 김미숙)에서는 지난 3월 25일 학부모 대상 학교교육과정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실시한 데 이어 4월 5일에는 학교의 주인공인 학생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학교들이 학교교육 설명회의 대상을 학부모로 설정하는 것에 비해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은 학교의 진정한 주인인 교직원이나 학부모가 아닌 학생이라는 본교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저·고학년별로 실시한 학생을 위한 교육과

정 설명회에서는 학교의 교육목표와 교육중점 그리고 학교특색교육 등을 알아보았으며 학사 달력을 중심으로 여러 교육활동과 내용이 소개되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와 관련된 소식에 관심을 갖고 귀기울였다.

학생회장 정OO학생은 “우리를 대상으로 학교교육 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이 처음이라 놀라웠다. 선생님들이 계획하신 여러 행사의 취지와 내용을 알게 되었으니 미리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당찬 각오를 들려주었다.

이OO 교사는 “이번 교육과정 설명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이었다.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교육과정에 대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설레는 목소리를 전했다.

김미숙 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 설명회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첫 걸음이다. 학교폭력예방 활동이나 나눔 행사 등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여러 교육활동에 주체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학생들이 주인 의식을 토대로 꿈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멋진 학생들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본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광양복초의 다음 교육적 행보가 궁금해진다.

광양=심종섭기자



## 광주 송학초, '다육식물 심기 인성프로그램'

### 각자의 개성 담아 화분에 심고 송학초 농장에 전시

송학초가 제76회 식목일을 앞두고 지난 2일 4-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육식물 심기 인성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다육식물 심기 인성프로그램'은 교사들의 재능기부와 송학초가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집체된 학생자치활동 및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다육식물 심기 인성프로그램'은 거친 환경에서 잘 자라는 다육이처럼 송학초 학생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라는 의미를 두고 진행됐다.

학생들 개개인 마음에는 다육이를 골라 각자의 개성을 담아 화분에 심고, 송학초 농장에 전시했다.

송학초 4학년 담임 임은미 교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안에서 '다육식물

심기 인성프로그램'을 실시했고, 학생들이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송학초 5학년 담임 이나영 교사는 “학교 농장을 학생들이 만든 다육이 화분으로 꾸며 전시 공간으로 점점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학초 김미자 교장은 “이번 식목일 행사와 접목한 인성프로그램을 전학년으로 확대해 1인 1화분 가꾸기도 진행할 예정이고, 반려식물을 통해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나눔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며 “코로나19 종식 후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님과 지역주민들에게 있어 학생들이 손수 꾸민 학교 농장이 소소한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 전남교육청, 산·학 연계 찾아가는 SW코딩 교육 실시

### 한전KDN-조선대 협력해 전남 9개 중학교에서 교육 기부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산·학 연계 찾아가는 소프트웨어(SW) 코딩교육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3일 나주공산중학교에서 한전KDN-조선대학교와 함께 주말 학교로 찾아가는 SW코딩교육을 실시했다.

주말 찾아가는 SW코딩교육활동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공기업 한전KDN의 교육기부활동 일환으로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2018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업인 한전KDN과 SW중심교육대학인 조선대학교가 협력해 SW 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희망하는 전남지역 중학교를 찾아 교육한다. 올해는 나주지역 5개 학교, 담양지역 2개 학교, 화순지역 2개 학교에 대해 연 40시간 교육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

다. 이날 나주 공산중 SW코딩교육은 올해 2번째 교육활동으로 전교생 3분의 1 가량의 학생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나주공산중은 정보교과가 2학기에 집중 편성돼 학생들이 1학기에 SW교육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1학기에 총 20시간의 SW코딩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선대학교 조영주 교수는 “수업을 지켜보니 놓여준 작은학교 학생들이지만 SW와 관련된 토론도 무척 잘하고, 질문도 많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높아서 놀랐다.”고 말했다.

SW교육 기부활동을 직접 기획한 한전KDN 박병원 차장은 “2018년부터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놓여준 지역의 열악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무척 보람 있다.”



면서, “올해 여름방학에는 섬 지역 중학교로 찾아가는 SW코딩 캠프를 1박2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광진 전남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은 나주공산중을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면서, “놓여준 학교에서도 인공지능 사회를 이끌어가는 미래인재가 길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 순천대, KOICA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선정

### 지역 사회 무대로 세계시민교육 및 교육봉사 활동가 양성 예정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가 2019년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주관하는 '2021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에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국내 대학생들에게 국제개발협력 이론과 실무지식을 제공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KOICA, ODA 교육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순천대는 지난 2019년 이해증진사업(책임

사회복지학부 강신원 교수)을 통해 '국제개발협력과 글로벌 사회봉사의 이해'라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론 수업과 함께 개발도상국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팀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이 순천, 광양 지역 중등학교를 방문하여 세계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우수 활동 학생 10명을 선발하여 미얀마 현지의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해외 현장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사업은 개발도상국을 돕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2019년에 이어 다시 한번 사업에 선정된 순천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 현장 활동 대신 지역 사회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실시하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는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기자

